

제33회 과학의 날 기념식

대덕 과기원강당서 과학계인사 1천여명 참석 과학기술상 3명, 유공자 77명 훈·포장·표창



제33회 과학의날 기념식이 4월21일 오전 10시 대덕연구단지내 한국과학기술원 강당에서 김대중대통령, 서정욱 과기부장관, 김병수과총회장, 박익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등 내빈과 과학기술계 인사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김대중대통령 치사

이날 기념식에서 김대중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없는 21세기 지식정보시대를 앞서 나갈 수 없으며 국가경제의 발전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첫째, 디지털기술, 광기술, 바이오기술, 우주기술 등 21세기형 기술분야에 과감한 선행투자를 하고 둘째, 대학과 출연연구소에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가도록 하는 보상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며 셋째,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과학기술자 양성체제 구축과 넷째,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유치 노력 다섯째, 일반 국민의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수과총회장 기념사

아울러 김대통령은 “기술혁신과 관련된 의식과 관행, 여러 사회제도와 연구기관의 경영시스템 모두가 세계일류가 되지않고는 과학기술 선진국의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전제하고 “우리의 과학기술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 여러분이 적극 동참하고 그 추진 주체가 되어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김병수과총회장은 기념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과학기술 선진국을 향한 우리 5백만 과학기술인들의 각오를 새롭게하고 결의를 다지는 모임”으로 “진정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민과 같이 호흡하면서 국민의 사랑과 지원을 받을 때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제 우리 과학기술인들도 국민에게 희망과 가시적인 업적을 보여드리는 과학기술인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또 대한민국과학기술상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과학기술진흥유공자77명에 대한 훈·포장수여 및 표창이 있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과학기술상

●과학상=權肅-(서울대 교수) ●기술상=梁承澤(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총장) ●진흥상=慶尙北道

과학기술진흥유공포상자

△국민훈장 무궁화장=李相洙(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李晚榮(서울대 초빙교수) △국민훈장 모란장=鄭明世(주)덕인 회장), 朴炳權(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崔暢根(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황조 근정훈장=姜哲熙(선문대 교수), 朴澤奎(건국대 교수) △국민훈장 동백장=金尙圭(미국 코네티컷대 명예교수), 高基秀(재일한국 과학기술자협회 상임고문), 尹昌國(기초과학지원연구소 서울분소장) △동탑 산업훈장=李址太(주)한국중공업 생산본부장), 李斗哲(주)삼창기업 회장) △홍조 근정훈장=黃禹錫(서울대 교수), 柳承欽(연세대 교수) △국민훈장 목련장=鄭光和(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역학표준부장), 張哲(한국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 朴和永(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崔明子(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辛元基(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평가부장) △철탑 산업훈장=徐容熙(한국전기통신공사 네트워크본부장), 金永基(주)조양기계공업 기술개발팀

장) △녹조 근정훈장=金榮燦(중앙대 교수) △국민훈장 석류장=都珍悅(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慶宗昊(한국과학기술원 교수), 洪性安(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지연료연구센터장), 金尙珍(한국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 金和燮(한국원자력연구소 정책연구팀장) △석탑 산업훈장=李源燦(〈주〉남원건설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육조 근정훈장=朴英子(숙명여대 교수), 金春秋(가톨릭대 교수) △국민포장=金永晩(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朴東旭(한국전기연구소 선임연구부장), 楊忠軫(포항산업과학연구원 금속·코팅재료연구팀장), 李美惠(한국화학연구소 책임연구원), 金鍾閏(한국항공우주연구소 연구기획부장), 金亨圭(한국과학재단 연구진흥단장) △산업포장=鄭永秀(〈주〉비츠로테크 대표이사), 金石垞(〈주〉방산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대통령표창=閔泳澈(대덕전파천문대

책임연구원), 金正律(한국교원대 교수), 金相俊(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그룹장), 申鉉準(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孫晉君(포항산업과학연구원 자원활용팀장), 金弘坤(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趙光來(한국항공우주연구소 로켓체계개발그룹장), 黃義洪(〈주〉한일 대표이사), 白麟燮(〈주〉애경산업 중앙연구소장), 車亨基(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 兪信在(한국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 徐宗奎(한국전력기술〈주〉안전해석처장), 李玟三(〈주〉우대기술단건축사무소 소장), 尹德華(한국통신 진주전화국 요금관리과장), 鄭鎮煥(포항제철〈주〉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 任彬亨(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 체육공원부장), 鄭世桓(한국과학재단 책임행정원), 徐廷秀(〈주〉대한건설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장) △국무총리표창=楊成燾(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朴敬燁(한국전

기연구소 신전력기기연구그룹장), 金鍾玟(삼성종합기술원 이사), 朴重第(〈주〉한단정보통신 연구소장), 崔承基(한국전산원 수석연구원), 周雄龍(〈주〉포항종합제철 기술연구소 부장), 高頭沫(〈주〉효성하이테크 대표이사), 崔祐鉉(〈주〉한진중공업 차장), 鄭明模(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품질규제실장), 具本埰(〈주〉인바이오넷 대표이사), 金泰卿(한국화학연구소 선임연구원), 申琮浩(한국화학연구소 선임연구원), 千惠慶(한국화학연구소 선임연구원), 李漢洙(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 李德源(〈주〉포항종합제철 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金元浩(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화학연구팀장), 申玉均(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행정원), 金相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검사역), 鄭在旭(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행정원), 安鍾煥(〈주〉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지원처장), 李炳善(한국전력공사 연구기획부장)

영광의 열매

제33회 대한민국과학기술상/과학상 수상자

서울대 權肅一 교수
‘강유전체’ 연구의 선구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순의 나이를 넘긴 노학자의 수상 소감은,

기술개발과 연구에 몰두해 온 그의 지난 30여년이 넘는 긴 세월을 잊은 듯 했다. 제33회 대한민국과학기술상 과학상 수상자 권숙일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강유전체 연구의 선구자이며, 기초과학기술 발전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비교적 적은 실험기구와 연구비로도 실험이 가능하고, 반도체 연구와의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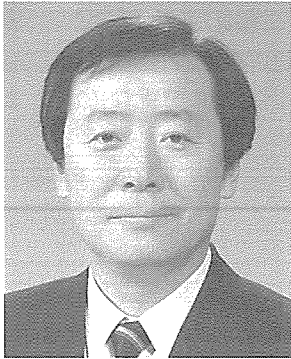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강유전체’였습니다. 당시 그 분야에 대한 국내 연구는 전무했지만, 연구결과로 국제적인 무대에서 경쟁하고 싶었습니다.” 강유전체 NaNO_2 결정에 대한 실험을 통해 Broken-bond theory를 확립한 권 교수는, KDP (KH_2PO_4) 결정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아 왔다. 그는 세계 최초로 강유전체-반강유전체인 RDA-ADA 혼합결정으로부터 양성자 유리상(proton glass phase)을 발견하여 이 혼합결정에 대한 주도권을 획득하였다. 또 이 혼합결정에서

강유전상과 양성자 유리상이 낮은 온도 근방에서 공존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표했을 뿐 아니라 혼합결정에 대한 분극 이완현상 및 노화현상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비휘발성 메모리(전원이 꺼져도 저장된 정보가 지워지지 않는 기억소자)인 F램에 쓰이는 강유전체 박막(SBT)에 대한 연구에 성공하였다. 이번 수상에는 1백40여편에 달하는 논문 발표와 과학인재 양성, 과학기술처 장관과 한국물리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국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도 인정됐다.

영 광 의 열 글

제33회 대한민국과학기술상/기술상 수상자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梁承澤** 총장
PC·FAX렌탈제도 도입



제33회 대한민국과학기술상 기술상 수상의 영예는, 양승택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총장에게 돌아갔다.

“맡은 프로젝트의 결과가 좋았고, 그 점만으로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큰 상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양총장은 우리나라 초대형 연구개발 과제인 TDX 교환기 개발사업을 성공시키고, 그 기술을 산업체에 성공적으로 이전, 수출상품화로 연결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68년 미국의 벨연구소 연구원을 시작으로 정보통신 과학자의 길로 들어선

그는, 79년 한국전자통신(주)(현 삼성전자)에 근무하던 시절에는 외국도입교환기(M10CN) 기술을 국산화한 바 있으며, 한국통신진흥(주) 초대사장 시절에는 국산 PC와 FAX 렌탈제도를 도입하여 정보화 기반 확충에 기여하였다.

92년에는 ETRI와 Qualcomm간 2단계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고, 93년에는 KMT 이동통신 기술개발사업 관리단을 발족시켜 CDMT 공동개발사업을 관리해 왔다.

기관경영측면에서는 경영목표로서 논문, 특허, 기술이전 실적을 중심으로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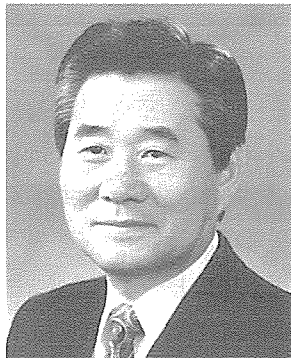
계량적 경영지표를 제시하고, 기초 기반연구에 대한 수행능력과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무한경쟁시대, 새로운 기술개발방향으로 미래 정보통신기술의 비전(IMPH: Intelligent, Multimedia, Personal, Human)을 제시한 바 있다.

“연구란, 실험의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양총장은 연구원들의 기술과 자신감에 대한 불신과 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나 프로젝트와의 연계가 쉽지 않은 현실이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장애물이라고 덧붙인다.

영 광 의 열 글

제33회 대한민국과학기술상/진흥상 수상

慶尙北道
지역특화사업 성공적 수행



올해의 대한민국과학기술상 진흥상의 주인공은 조금 특별하다. 개인 연구자나 기술자가 아닌 특정 지역의

기관이 참가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곳은 바로 경상북도(도지사: 이의근/사진).

경상북도는 우리나라 시도 중에서 처음으로 과학기술전담조직(과학기술진흥과)을 지난 98년에 신설하고, 이어 작년에는 경북 과학기술 5개년계획 수립과 과학기술진흥조례를 제정하

는 등 과학기술혁신추진체제 확립에 남다른 곳이다.

이미 산·학·관 협력을 통한 신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해, 지역협력연구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산학연 지역 컨소시엄사업, 지역특화산업기술훈수업, 기계설계인력 양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위해 석탄·산림과학·천문과학관을 갖춘 지방과학관을 건립하고, 전국 지능로봇경진대회 및 벤처박람회 등 각종 대회를 개최했으며, 태양열 시스템을 개발하고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체

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위한 기반 구축에도 앞장서 왔다. 경상북도에서는 지역섬유산업을 고부가산업으로 성장·발전시킨다는 취지에 선진섬유기술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기술세미나와 기술지도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미와 경주, 서울을 오가며 경북패션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 시작하는 섬유기계기술개발센터 설립도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영남대학 내에 경북테크노파크 조성과 포항에 테크노파크 조성도 추진중에 있다. ①7